

한글 점자의 이해

박 중 휘

(영동대학교 교수)

□ 강의 개요

인간의 언어생활은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사용으로 이루어진다. 시각장애 아동의 경우 ‘말하기’와 ‘듣기’ 같은 음성언어의 사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읽기’와 ‘쓰기’ 같은 문자언어 사용에는 어려움이 많다. 읽기와 쓰기 기술은 수학, 과학, 사회 생활과 같은 교과를 공부하는 데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하고 전달하는 데도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문자언어 습득 기술은 교육의 초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점자는 맹 아동이 읽고 쓸 수 있는 중요한 문자이다. 그러나 점자는 단순히 문자 이기보다 그 이상의 큰 의미를 준다. 즉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자신감과 독립성 그리고 동등권을 준다. 점자를 능숙하게 읽고 쓸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보다 취업률이 높고,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는다(Ryles, 1996). 따라서 조기에 시각장애 아동에게 점자를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목자는 시각을 활용하고 점자는 촉각을 활용하기 때문에 목자와 점자는 사용하는 감각 유형이 다르다. 시각은 한순간에 지각하는 양이 많고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용하므로 목자는 대부분 선으로 된 상징체계이며, 읽기 및 쓰기 속도가 빠르다. 촉각은 한순간 지각하는 범위가 대부분 점자 한 칸에 불과하며, 정보를 순차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읽기와 쓰기 속도가 목자에 비해 느리다. 또한 점자는 한정된 개수의 점을 활용하여 모든 문자와 숫자 및 부호를 나타내야 하므로 점자만의 고유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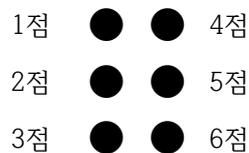
특성이 있다(김영일, 2010).

- 1. 한글 점자의 제자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 2. 한글 점자의 자모를 읽고 쓸 수 있다.
- 3. 한글 점자의 약자와 약어를 읽고 쓸 수 있다.
- 4. 점자의 숫자 규정을 이해할 수 있다.
- 5. 정자와 약자의 지도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1. 한글 점자의 제자 원리

1) 한글 점자의 구성

한글 점자는 1926년 11월 4일 송암 박두성 선생이 창안하였다. 점자는 6점(세로로 3점, 가로로 2점)으로 구성되고, 왼쪽 위에서 아래로 1, 2, 3점,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4, 5, 6점의 번호를 붙여 사용한다(그림 1). 이 6개의 점을 조합하여 64(2⁶)개의 점형을 만든다. 따라서 점자는 많은 점형으로 이루어지고, 그 점형에 의미가 부여된 문자이다.



<그림 1> 점의 번호(읽을 때)

64개의 점형 중 하나는 점을 하나도 찍지 않은 빈칸으로, 이 빈칸은 묵자에서 단

어 사이를 띄우는 것과 같이 점자 단어 사이를 띄우는 데 사용된다. 그 외의 63개의 점형을 초성 자음 13자, 종성 자음 14자, 모음 21자, 약자 27자, 약어 7개, 숫자, 문장 부호 등에 배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점자의 기본 구조는 묵자와 다르다.

2) 한글 점자의 특성

점자는 위에서 설명한 구조적 차이뿐만 아니라 문법적 구조에서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성 자음과 종성 자음이 다르게 제자(製字)되어 있다.

둘째, 점자에서는 초성 ‘ㅇ’을 사용하지 않는다.

셋째, 초성 ‘ㄱ, ㄷ, ㅂ, ㅍ, ㅈ’을 적을 때에는, 앞의 ‘ㄱ, ㄷ, ㅂ, ㅍ, ㅈ’ 대신 된소리표(6점)를 적는다.

넷째, 부피를 줄이고, 읽기와 쓰기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27개의 약자와 7개의 약어를 사용한다.

다섯째, 약자 ‘영’은 그 앞에 ‘ㅅ, ㅆ, ㅊ, ㅌ’이 올 때에는 ‘ㅇ’이 된다.

여섯째, 모음 겹글자 ‘애’는 ‘야+이’가 아니라 ‘야+애’로, ‘위’는 ‘우+이’가 아니라 ‘우+애’로 쓰며, ‘왜’는 ‘오+애’가 아니라 ‘와+애’로, ‘웨’는 ‘우+애’가 아니라 ‘위+애’로 쓴다.

일곱째, 점자는 모아서 쓰지 않고 풀어 쓴다. 예를 들면, ‘국’을 ‘ㄱ, ㅊ, ㄱ’으로 적는다.

이러한 점은 시각장애 아동이 점자를 배우는 데 어려움이 되므로 교사는 시각장애 아동에게 점자를 가르칠 때 이러한 특성에 유의해야 한다.

2. 한글 자음과 모음 익히기

1) 한글 자음 익히기

한글 점자는 초성 자음과 받침으로 쓰인 종성 자음이 각기 다르게 제자되어 있으며, 한글 점자의 자음자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한글 점자의 자음자

초 성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	⠠	⠠	⠠	⠠	⠠	⠠	⠠	⠠	⠠	⠠	⠠	⠠	⠠
종 성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	⠠	⠠	⠠	⠠	⠠	⠠	⠠	⠠	⠠	⠠	⠠	⠠	⠠

초성 자음과 종성 자음은 위치 면에서 점형이 다르지만 모양 면에서는 점형이 같다. 예를 들어 니은, 디귤, 미읍, 키읍, 티읍, 피읍, 히읍은 초성 자음의 점형을 위에서 아래로 이동시키면 각각 종성 자음의 점형이 된다. 기역, 리을, 비읍, 시읏, 지읏, 치읏은 초성 자음의 점형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종성 자음의 점형이 된다.

한국 점자 규정에 근거하여 한글 점자의 자음과 관련된 주요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응’이 모음 앞에 쓰일 때에는 생략하며, ‘이응’ 자체를 표기할 때만 온표(1-2-3-4-5-6점)를 앞에 적고 1-2-4-5점으로 적는다.

둘째, 된소리 글자 ‘쌍기역, 쌍디귤, 쌍비읍, 쌍시읏, 쌍지읏’을 적을 때에는 ‘ㄱ, ㄷ, ㅂ, ㅅ, ㅈ’ 앞에 된소리표(6점)를 적는다.

셋째, 쌍받침 ‘쌍기역(ㄱ)’은 1점, 1점으로 적고 쌍받침 ‘쌍시옷(ㅅ)’은 3점, 3점을 적지 않고 약자인 3-4점으로 적는다.

넷째, 겹받침으로 쓰인 ‘ㄱ, ㄴ, ㄷ, ㄹ, ㄹ, ㄹ, ㄹ, ㄹ, ㄹ, ㄹ’은 각 받침을 순서대로 적는다.

2) 한글 모음 익히기

개정 한국 점자 규정에 근거하여 한글 점자의 모음자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한글 점자의 모음자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	⠓	⠕	⠗	⠙	⠛	⠝	⠟	⠡	
ㅙ	ㅛ	ㅜ	ㅠ	ㅑ	ㅓ	ㅕ	ㅗ	ㅛ	ㅜ	ㅠ
⠋	⠍	⠏	⠒	⠕	⠙	⠛	⠗	⠙	⠛	⠕

첫째, 기본 모음을 나타내는 한글 점자는 모음 두 자씩 점형이 서로 대칭되게 제작되어 있다. 즉 ‘ㅏ와 ㅑ’, ‘ㅓ와 ㅕ’, ‘ㅗ와 ㅛ’, ‘ㅜ와 ㅠ’, ‘ㅡ와 ㅣ’는 서로 좌우 대칭된 점형이다.

둘째, 이중모음 ‘ㅙ, ㅛ, ㅜ, ㅠ, ㅑ, ㅓ, ㅕ’는 한 칸에 표기하는 별도의 점형으로 적는다.

셋째, 모음자에 ‘ㄱ’이 이어 나올 때에는 그 사이에 붙임표(3-6점)를 적는다. 그 이유는 ‘ㄱ’의 점형이 ‘쌍시옷 받침 약자(ㅅ)’의 점형과 같이 3-4점을 중복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예: 서예, 도예)

넷째, ‘ㅙ, ㅛ, ㅜ, ㅠ’는 ‘ㅑ, ㅓ, ㅕ, ㅗ’뒤에 1-2-3-5점을 적어 두 칸의 점형으로 적는다.

다섯째, ‘ㅈ, ㅊ, ㅊ, ㅊ’ 다음에 ‘ㄱ’가 이어 나올 때에는 그 사이에 붙임표(3-6점)를 적어 이중모음으로 혼동하지 않게 적는다(예: 구애, 우애).

3. 한글 약자와 약어 익히기

점자의 부피를 줄이고 읽기와 쓰기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하여 한글 점자에는 27개의 약자와 7개의 약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점자의 약자는 <표 3>과 같으며, 한글 점자의 약어는 <표 4>와 같다.

<표 3> 한글 점자의 약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	⠠	⠠	⠠	⠠	⠠	⠠	⠠	⠠	⠠	⠠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	⠠	⠠	⠠	⠠	⠠	⠠	⠠	⠠	⠠	⠠
ㄴ	ㄷ	ㄹ	것							
⠠	⠠	⠠	⠠							

<표 4> 한글 점자의 약어

단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약어	⠠	⠠	⠠	⠠	⠠	⠠	⠠

약자와 약어에 관한 한국 점자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성 자음과 모음 ‘ㅏ’의 조합으로 된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9개는 ‘ㅏ’를 생략하면 약자가 된다. 이것을 ‘ㅏ’ 생략 약자라고 한다. 한글 점자에서

‘ㄴ’ 생략 약자를 표준으로 하지만 ‘ㄴ’ 생략 약자 다음에 모음이 이어 나올 때에는 ‘ㄴ’ 생략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예: 나이, 마음, 자유).

둘째, ‘가와 사’는 별도의 점형으로 약자가 제자 되어 있으며, ‘라와 차’는 ‘ㄴ’ 생략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셋째, 한글에서 자주 사용되는 모음(ㄱ, ㅋ, ㆁ, ㄷ, ㅌ, ㅡ, ㅣ)과 받침(기역, 니은, 리을, 이응)을 조합한 14개의 약자가 있다. 자음에 어느 자음이 오더라도 이 약자들을 사용한다.

넷째, ‘성, 썩, 정, 쨍, 칭’은 초성 자음 시옷, 쌍시옷, 지읒, 쌍지읒, 치읓 다음에 ‘영’의 약자로 나타낸다.

다섯째, ‘것’과 ‘받침 쌍시옷’ 약자는 한글에서 자주 사용된다는 점을 반영하여 약자로 규정되어 있다. 이들 약자는 특별한 예외 사항이 없이 해당 글자가 나올 때 항상 사용한다. 예를 들어 ‘땅을 봤다.’라는 문장을 적을 때 ‘ㅍ’ 약자를 적고 받침 쌍시옷 약자를 적으면 ‘꺨’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ㅍ’의 ‘ㄴ’ 생략 약자를 사용하지 않고 ‘ㅍ’ 다음에 ‘ㄴ’를 적고 ‘받침 쌍시옷’ 약자를 적으면 된다.

여섯째, 두 음절 이상의 단어를 간단하게 표기하기 위해 7개의 약어가 규정되어 있다. 약어는 모두 1점으로 시작되는 것이 특징이며, 문장에서 흔히 접속사로 쓰이거나 뒤에 다른 음절이 붙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나(예: 그리고, 그래서인지) 앞에 다른 음절이 붙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약자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예: 쨍그리고, 우그리고).

4. 숫자 익히기

아라비아 숫자가 세계 공통이듯이 점자의 숫자도 네메스 코드를 예외로 한다면, 세계 공통이다. 한국 점자 규정에 근거하여 한글 점자의 숫자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점자로 숫자를 나타낼 때 특이한 사항은 숫자 앞에 수표(3-4-5-6점)를 적는다는

점이다. 두 자리 이상의 숫자더라도 수표는 한 번만 적는다. 한글 문장에서 숫자를 나타낼 때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첫째, 숫자 다음에 한글이 나올 때에는 숫자와 한글을 기본적으로 붙여 쓴다.

둘째, 숫자와 혼동되는 초성 자음 ‘니은, 디귤, 미음, 키읃, 티읃, 피읃, 히읃’과 약자 ‘운’이 숫자 다음에 나올 때에는 숫자와 한글을 띄어 쓴다.

셋째,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계좌번호 등과 같이 숫자가 붙임표로 이어질 때에는 수표를 첫머리에 한 번만 적고, 붙임표 뒤에는 수표를 다시 적지 않는다.

넷째, 숫자에 이어 나온 붙임표 뒤에 ‘나, 다, 마, 카, 타, 파, 하’를 번호로 적을 때에는 ‘나’를 생략하지 않는다(예: 수학 10-나).

다섯째, 숫자가 물결표로 이어질 때에는 물결표 뒤에도 수표를 적어 나타낸다(예: 02-234-3456~8).

<표 5> 한글 점자의 숫자

수표	0	1	2	3	4	5	6	7	8
⠠	⠠⠨	⠠⠠	⠠⠠⠨	⠠⠠⠠	⠠⠠⠠⠨	⠠⠠⠠⠠	⠠⠠⠠⠠⠨	⠠⠠⠠⠠⠠	⠠⠠⠠⠠⠠⠨
9	10	23	45	77	86	100	120	375	555
⠠⠠	⠠⠠⠠	⠠⠠⠠⠠	⠠⠠⠠⠠⠨	⠠⠠⠠⠠⠠	⠠⠠⠠⠠⠠⠨	⠠⠠⠠⠠⠠⠠	⠠⠠⠠⠠⠠⠠⠨	⠠⠠⠠⠠⠠⠠⠠	⠠⠠⠠⠠⠠⠠⠠⠨

5. 정자와 약자 지도

점자를 가르칠 때에는 처음부터 정자와 약자를 동시에 지도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지적장애를 겪한 아동은 많은 약자를 배우기 어렵기 때문에 정자만을 가르칠 수도 있다. 한글 점자에서는 약자의 수가 적고 대부분의 약자들이 한 칸의 점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자와 함께 약자를 가르치는 것이 좋다.

처음부터 약자 점자를 가르칠 경우에도 전체 점자부호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정자 점자를 가르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자점자를 가르치는 것이 좋다.

- ① 일차적인 문자매체가 목자인 아동은 처음에 점자로 라벨을 써 붙이거나 필요한 메모를 할 때 정자점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는 약자를 가르쳐야 한다.
- ② 목자를 이미 알고 있는 중도에 실명한 아동에게 모든 자모를 가르쳐 쉽게 단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하고, 곧이어 약자를 가르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흥미를 주기 위한 자모의 교육은 약자를 가르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③ 시각장애 아동이 부모, 형제, 친구들에게 편지를 쓸 때 정자점자를 사용할 수 있다. 시각장애 아동들은 가족이나 친척에게 점자를 가르쳐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도록 격려한다. 교사는 필요한 경우 짧은 시간 내에 정자점자를 배워 짤막한 내용의 자료를 만들어 주거나 숙제를 낼 수 있다.
- ④ 중복시각장애 아동이 약자를 배우기 어려울 경우 정자점자만을 가르칠 수 있다. 정자점자로 라벨을 쓰고, 점자 학습보드로 글자를 쓰게 하며, 간단한 내용을 써서 읽도록 할 수 있다. 일부의 중복시각장애 아동에 따라서는 약자를 배우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약자는 쉽게 익힐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아동의 이름을 약자로 써주면, 쉽게 자신의 이름을 읽는다. 아동이 약자를 사용하는 범위를 결정할 때 아동의 능력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정자점자를 가르치는 데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는 아동에 따라 다르다. 아동에게 점자를 가르칠 때는 언어 경험 접근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자모를 가르칠 때 자연스럽게 문식성 경험과 통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의 이름이 ‘명희’라면, 짤막한 문단을 읽도록 하고, 그중에 ‘ㅁ’이 들어가는 모든 글자를 찾도록 한다. 이와 같이 의미 있는 자모를 가르쳐 주고, 언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정자점자를 가르치는 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정자점자로 된 읽기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 취학전 유아용으로 개발된 자료가 거의 없어 그들에게 적합한 책을 구하기 어렵다. 따라서 취학전 유아용 자료를 약자로 적어야 하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자점자로도 출판해야 한다. 평가 결과를 기초로 정자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면, 정자점자 자료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정자로 먼저 가르칠 경우, 언제 어떻게 약자로 전환하여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점자 교육을 받고, 점자를 일차적인 읽기와 쓰기 매체로 사용할 아동은 가능한 한 일찍부터 약자를 배워야 한다. 유치원에서 어느 정도의 약자를 익힌 후 초등학교 1학년에서 다시 복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요약

시각장애 아동은 언어생활에서 말하기와 듣기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읽기와 쓰기에 어려움이 있다. 정안 아동은 일찍부터 물건이나 포장에 쓰인 글자, 간판, 광고물, 텔레비전, 신문, 잡지, 책 등에서 자연스럽게 문자와 접하게 된다. 그러나 시각장애 아동은 점자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렵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는 시각장애 아동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물건에 점자를 써 붙여 조기에 점자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점자는 묵자와 구조적 차이뿐만 아니라 문법적 차이도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각장애 아동이 점자를 배우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각장애 아동에게 점자를 가르칠 경우 점자의 특성에 유의해야 한다.

한글 점자는 자음 초성 13자(초성 ‘ㅇ’ 생략), 종성 14자, 모음자 21자가 있으며, 약자 27개와 약어 7개, 숫자와 부호 등이 제자되어 있다.

점자의 읽기는 특히 조기에 익히지 않으면 속도가 느려서 학습에 매우 불리할 수 밖에 없으므로 조기 점자 교육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 임안수, 이해균, 박중휘, 김정현(2010). **점자는 내친구**. 경북: 대구대학교출판부.
- 김영일(2010). **시각장애인복지론**. 집문당.
- Olson, M. R.(1981). *Guidelines and games for teaching efficient braille reading*. New York: AFB Press.
- Mangold, S.(1994). *The Mangold developmental program of tactile perception and braille letter recognition: Teacher's manual*. Castro Valley, CA: Exceptional Teaching Aids.
- Routman, R.(1991). *Invitations: Changing as teachers and learners K-12*. Portsmouth, NH: Heinemann.
- Ryles, R.(1996). The impact of braille reading skills on employment, income, education, and reading habits.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 Blindness*, 90(3), 211-215.

(e-mail : byeorine@hanmail.net)